

광주·전남 6곳 후보지 추천...한전공대 유치전 불 붙었다

“첨단 3지구로...” 북부권 4개 지자체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오늘 지자체 후보지 접수 마무리...28일까지 최종 부지 확정

광주시와 전남 북부권 4개 지자체·의회가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에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나주 혁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가 전남도와의 상생을 위해 광주 혁신도시 조성을 아예 포기하고 나주에 전남도와 공동혁신도시를 세운 만큼, 한전공대는 광주에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장성군 등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4개 지자체는 경제·산업, 교통, 환경, 기반시설,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체계를 마련해 광주와 전남 북부권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상생 의제로 한전공대 첨단3지구 유치, 첨단3지구 조기 착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 등을 선정했다. 담양은 한국전통정원선원 유치, 장성은 우수한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상생 의제로 제출하고 광주 자치구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광주 북구 첨단3지구가 한전공대 최적지로서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R&D특구 내 집적화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로 한전공대 조경기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와 전남의 접경을 아우르는 부지로 광산구 신룡·진곡·하남산단, 전남의 장성 나노산단 발전과 담양·장성군의 관광·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생협의회는 기타 협력 사항으로 광역도로망을 포함한 생활 SOC 확충 및 신성장동력 확보, 영산강권 테마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무등산권 전통문화 발전 협력체계 구축,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역량 강화 노력 등을 선정했다.

상생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은 전라도 정도 새천년을 맞아 전북권과의 연계발전의 발판을 만들고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3지구는 연구 인프라와 부지, 주변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한전공대 최적의 입지이며, 지역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용역사에 후보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거쳐 현장실사·평가를 진행, 오는 28일 이전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달 19일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3주 후인 8일 추천부지에 대한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자치구가 추천한 곳과 광주시가 발굴한 곳 등 3곳이 후보 부지로 추천된다. 전남도는 타 시군의 유치 의향이 없어 나주시내 3곳을 추천할 전망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들은 수일에 걸쳐 각 지자체 추천부지 6곳을 현장실사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현장실사와 평가는 1월 넷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성을 위해 현장실사나 평가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는 부지선정 심사 결과를 담은 서류를 봉인해 한전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발표 시기는 늦어도 오는

28일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 측은 구체적인 발표 방법을 고심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중소·벤처 기업이 ‘사람 중심 경제’ 주역 경제에 활력주고 일자리 창출 중추돼야”

문대통령 중소기업인 만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억원에 이르렀고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었다”며 “기업 가치 1조원 기업도 5개로 늘었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액과 수출 참여 중소기업 수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4조원 이상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000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를 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이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제 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친정체제 강화...집권 중반 기강 다잡고 분위기 쇄신

문대통령 오늘 靑 비서진 개편

설 전 개각도...10개 부처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로 임명된 참모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은 끝난 것 같다”며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노 대사를 비롯해 조윤제 주미대사 등 복수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랜 ‘정치적 동지’인 노 대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가 고향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그가 집권 3년 차에 발탁된 것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여권 내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전남 고흥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본부장을 맡았다.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윤 전 논설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MBC 노동조합 초기 멤버로 활동했고, 작년에는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도 했다.

비서실장과 정무·국민소통수석에 대한 인선이 발표되면 내년 총선에 나갈 인물 중심으로 비서관급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급 인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부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다. 그간 국회 문을 꾸준히 두드렸던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총선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일부 비서관급에 대한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춘추관장으로,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2기 참모 진용을 꾸린 직후 개각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개각도 설 이전에 단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재임 1년 반을 넘겨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처가 거론되며, 최대 10개 안팎의 ‘대폭 개각’ 가능성도 회자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천년역사의 신비로움 앙코르왓!

무안 → 캄보디아

단4회! 2월 2일, 6일, 9일, 13일 출발

ARPF01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 5일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949,000원~

오감만족 가족여행지!

무안 → 대만

단1회! 실연휴 2월 2일 출발

ATPF01 대만/지우펀/야류 4일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1,249,000원~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여행자보험**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르트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종/호별 2급호실 이상 2인 1실/교동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천/불편함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과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유가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